



## 사이버 대재해 채권 발행 증가

김가현 연구원

## 요약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연계증권(ILS)을 활용하고자 함. 2023년 1월 영국 보험회사인 비즐리(Beazely)는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업계 최초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함.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재보험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러 보험회사에서도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험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 보험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보험회사는 사이버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연계증권(ILS)을 활용하고자 함<sup>1)</sup>
  -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범죄 피해 비용은 매년 15%씩 증가하여 2015년 3조 달러에서 2025년에는 연간 10조 5,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3분기 랜섬웨어 활동은 전년 동기 대비 95%,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sup>2)</sup>
  - 전 세계 사이버 보험시장의 원수보험료는 2017년 약 40억 달러에서 2022년 130억 달러로, 지난 5년 동안 3배 이상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23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빠르게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재보험시장의 재정적 한계가 예상되며, 보험회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험연계증권을 활용하고자 함
    - 보험연계증권은 보험 사건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상품으로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함으로써 재보험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함<sup>3)</sup>
- 2023년 1월 영국 보험회사인 비즐리(Beazely)는 업계 최초로 사이버 위험을 담보로 하는 사이버 대재해 채권(Cyber Cat Bond)을 발행함<sup>4)</sup>
  - 대재해 채권은 대표적인 보험연계증권 중 하나로 특정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의 원금 전액 혹은 일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임<sup>5)</sup>
  - 채권 규모는 4,500만 달러로 만기일은 2024년 1월 8일이며, 보상액(Indemnity) 트리거가 적용되어 기술 오류 및

1) Swiss Re(2023),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Cyber insurance market"

2) CORVUS(2023. 10. 24), "Q3 Ransomware Report: Global Ransomware Attacks Up More Than 95% Over 2022"

3) 조영현·김혜란(2023. 11. 27),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4) Beazely(2023. 1. 9), "Beazely launches market's first cyber catastrophe bond"

5) 조영현·김혜란(2023. 11. 27), 「세계 보험연계증권(ILS) 시장의 성장과 과제」

누락(Errors & Omissions)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위험이 3억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보상액 트리거란 재해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일정 조건(트리거)을 충족하면 대재해 채권 투자자는 채권 원리금 만큼 손실을 보게 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구조임

○ 비즐리는 이후 2차례에 걸쳐 같은 담보에 대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였고, 2023년 말에는 총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새롭게 발행함

- 2023년 5월 추가로 2,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Cairney II)을 발행하여 채권 범위를 확장했고, 이후 9월에도 1,650만 달러를 추가로 발행(Cairney III)하여 총 채권 범위를 8,150만 달러까지 늘림
- 2023년 12월에는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PoleStar Re Ltd)을 새롭게 발행했으며, 보험회사는 2025년 말까지 사이버 위험으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이 5억 달러를 초과할 때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게 됨

〈표 1〉 비즐리(Beazely)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

구분	Cairney	Cairney II	Cairney III	PoleStar Re Ltd
보험회사(Sponsor)	비즐리(Beazely)	비즐리(Beazely)	비즐리(Beazely)	비즐리(Beazely)
발행자	Artex SAC Ltd	Artex SAC Ltd	Artex SAC Ltd	PoleStar Re Ltd
발행규모	4,500만 달러	2,000만 달러	1,650만 달러	1억 4,000만 달러
발행일	2023년 1월	2023년 5월	2023년 9월	2023년 12월
손인	사이버 위험	사이버 위험	사이버 위험	사이버 위험
보상액(Indemnity) 트리거	3억 달러	3억 달러	3억 달러	5억 달러

자료: Artemis(2023), "Catastrophe bond and ILS market dashboard"

○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재보험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러 보험회사에서도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sup>6)</sup>

- 액시스 증권(Axis)은 2023년 11월 7,500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하여 2026년 1월까지 5억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이버 위험 발생 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sup>7)</sup>
  - 사이버 위험은 클라우드 중단, 악성 소프트웨어, 데이터 유출 등이 해당됨
- 스위스리(Swiss Re)는 2023년 12월 사이버 산업 전반에서 발생한 손실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보상이 제공되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함<sup>8)</sup>
  - 미국 사이버 산업 손실이 90억 달러 이상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만기는 2026년 말까지임
- 처브(Chubb)는 2023년 12월 1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사이버 대재해 채권을 발행했으며, 지역별로 분류되어 북미 지역의 경우 6억 달러, 그 외 국제 부문의 경우 4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음<sup>9)</sup>

6) Artemis(2023. 9. 7), "Beazely expects to sponsor more cyber catastrophe bonds in 2024"

7) Artemis(2023), "Long Walk Reinsurance Ltd. (Series 2024-1)"

8) Artemis(2023), "Matterhorn Re Ltd. (Series 2023-1)"

9) Artemis(2023), "East Lane Re VII Ltd. (Series 2024-1)"